

# EBS, Quam Libet.

수능특강 윤리 by 마이뉴

1	<p>누구? A은(는) 무엇? <span style="float: right;">87p</span></p> <p>“(A)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한결같은 상태로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이들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철학자)들인 반면, 그것은 파악하지 못하면서 잡다하고 변화무쌍한 것들 속에서 헤매는 이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네.”</p>
2	<p>누구? <span style="float: right;">88p</span></p> <p>만일, 우리의 사고(思考)하는 능력이 모든 인류에 공통된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성도 모든 인류에 공통된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지시해 주는 이성의 법칙도 보편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같은 시민이자 동료이다. 나아가 이 세계는 하나의 국가라고 볼 수 있으며, 모든 인류는 정치적 공동체라 할 수 있다. 결국 세계가 한 국가라는 생각은 우리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법도 역시 그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능력은 대체 어디서 나왔겠는가? ...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은 우리 이성에서 나온 것임에 분명하다. 왜냐하면 무(無)는 무일 뿐, 무에서 아무 것도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p>
3	<p>A, B는 각각 누구? <span style="float: right;">91p</span></p> <p>A : 탁월함[德]이 영혼 속에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이고 필연적으로 유익하다면, 그것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영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유익하지도 유해하지도 않지만, 알아 더해지느냐 무지가 더해지느냐에 따라 유익하게도 유해하게도 되기 때문이다.</p> <p>B : 자발적으로 행한다는 점에서 탁월성[德]도 자발적인 것이며 악덕(惡德)도 탁월성에 못지않게 자발적인 것이다. 나쁜 사람에게도, 설령 그가 행위의 목적에 대한 생각이 없이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행위에 있어서는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탁월성이 자발적인 것이라면, 악덕 또한 자발적인 것이다.</p>